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서 권혁상 화백 초대전

금강의 정서로 '군산인의 삶' 느끼자

내향·부잔교 등 향토적 서정성 보여주는 작품 대다수



권혁상 작 '갈매기들의 식사' ↑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박물관의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 '회귀回歸'라는 주제로 권혁상 화백 초대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군산을 주제로 한 권혁상의 작품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으로 권혁상은 금강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군산의 곳곳을 답사하여 군산인의 삶을 느끼기 위해 노력했다.

권 화백의 작품에는 내향, 부잔교 등 군산의 향토적 서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현실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했다. 또 채색을 밝게 하여 소재가 담고 있는 무거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초대전에는 '동백대교 전망', '조

개 개는 아낙', '정주 상회 사거리', '갈매기들의 식사', '내향 부잔교' 등 군산의 삶과 정취가 묻어나고 회로에라이 담겨져 있는 작품들이 전시 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권 화백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물론 군산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기획되었다"며 "권 화백의 예술 세계와 군산의 정서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장미갤러리는 복원된 근대건축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1층은 하반기 화백의 자료실로 화구 전시와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2층은 군산의 문화예술인에게 개방하여 운영되고 있다. /군산=장현 기자

우리 고유 무형유산 손수제작물로 담다

국립무형유산원, UCC영상 공모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무형유산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국민에게 친숙한 매체인 손수제작물(UCC)을 통해 무형유산과 무형유산 영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생활 가까이 향유되고 있는 무형유산 이야기'를 주제로 중·고등부와 일반부(대학생 포함)로 나눠 진행한다.

응모자들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무형유산 현장에 방문해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한 이야기, 대대손손 무형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3분 내외의 손수제작물(640×480픽셀 이상, 용량 200MB 내외) 영상을 다양한 영상기법을 활용한 손수제작물로 구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며, 별도로 마련한 공모전 누리집(hff.ihq.go.kr)을 통해 제출한다. 응모자들은 주제 적합성, 구성력, 표현력,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0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q.go.kr)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최우수작(중고등부 1점/ 일반부 1점), 우수작(중고등부 2점/ 일반부 2점) 등 총 6편을 선정해 오는 8월 31일 개최하는 '제1회 2017년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수상작은 축제 기간 중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무형유산은 전통공연예술(음악, 춤 등), 전통기술(나전장, 소목장 등), 의례, 놀이, 축제 등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되어 온 무형의 전통으로 세계화로 획일화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긍지를 지켜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무형유산에 관한 참고 자료는 무형유산 아카이브 누리집(www.ihq.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공모전이 더 많은 국민에게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5월 셋째주 개봉작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5월 셋째 주(18일) 개봉작으로 파리로 처음 떠난 초보 여행자 피오나의 로맨틱 모험 이야기 '로스트 인 파리'가 개봉, 상영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돌 색션을 통해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난 '로스트 인 파리'는 파리에 살고 있는 이모의 SOS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파리로 떠난 피오나가 우연히 만난 돌과 함께 이모의 행적을 찾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주 돌 상영 당시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던 '로스트 인 파리'는 '프랑스의 웨스 앤더슨'으로 불리는 도미니크 아벨과 피오나 고든 감독 커플의 신작으로 '롬바', '페어리'에서 보여준 그들 특유의 감각적인 색감과 독특한 스토리 그리고 흥겨운 춤과 음악이 더해져 파리를 더욱 사랑스러운 도시로 담아냈다.

관객실조사 결과 반영작이며,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도립미술관 서울관, 현대공예 원로 10인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공예문화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공예문화협회가 주관하는 '한국현대공예 원로 10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길용, 정해조, 김영순, 오원탁, 정복상, 정경연, 김원순, 박현수, 양훈, 김종연 등 10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 기획전으로 각 공예분야를 대표하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공예계의 원로작가 및 정예작가 10인을 선정 초대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현대공예문화의 우수성과 현 동향을 확인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양한 기획전시와 특별전을 통해 관람객들의 문화욕구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예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장수 번암동화호 봉수문화제 행사 개최

제1회 번암동화호 봉수문화제행사가 지난 13일 번암물빛공원에서 최용득 군수, 한영희 부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수문화원이 주최하고 번암면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장순업)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풍물단과 번암원도요제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군민안전기원제, 봉수 봉송점화식, 평양예술단 공연, 봉수문화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대회를 통해 "번암동화호 봉수문화제를 통해 가야문화(가야봉수)의 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우리 농특산품을 상품화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자"며 "번암동화호 봉수문화제 행사가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서로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내달 2일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사회자에 배우 박철민·김혜나

빼곡한 등나무가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 줄 낭만의 터전,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열리는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사회자와 개막 공연 아티스트가 공개됐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현장을 이끌어줄 사회자로 4회에 이어 빛나는 호흡을 보여줄 배우 박철민과 김혜나가 선정됐다.

영화 <재심>, <커튼콜>,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KBS 2TV)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박철민은 최근 참여한 영화 <악녀>의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로 네 번째 개막식 사회를 맡는다.

영화 <스플릿>, <여자전쟁: 떠도는 눈>과 드라마 <산안여고 탐정단>(JTBC), <너녀들>(JTBC) 등을 통해 친근하면서도 진솔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혜나는 1회부터 4회

개막 축하공연으로

가수 한영애의 무대 펼쳐

까지 매년 무주산골영화제를 찾으며 꾸준한 인연을 맺어왔다.

이번 행사에서 개막식 사회와 더불어 관객과의 대화 '모더레이터'로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영화제를 찾아온 게스트들과 관객에게 초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해줄 개막 축하공연은 국내의 독보적인 보컬리스트 가수 한영애가 맡아 뜨거운 무대를 펼친다.

한국 대중음악의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가수 한영애는 시선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무대로 영화제의 개막식을 화려하게 꾸며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막식 시작의 문을 열어줄



← 박철민(왼쪽)과 김혜나

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반디수화합창단'은 5개국 9가정의 엄마와 딸로 구성된 다양성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날 특별한 공연으로 개막식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전망이다.

오는 6월 2일, 오후 6시 30분 그린카펫 행사로 시작되는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은 다양한 영화인 게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 축하공연과 개막식 이후 한국 최초의 스톱애니메이션 '홍부와 놀부'에 판소리와 레게음악을 결합한 레게 음악극(레게 이나 필름(Reggae inna Film))이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모바일 RTS '택틱스크러시', 인디게임 BEST 선정

전주시 모바일게임 전문업체 편웨이브(대표 송현우)가 개발한 모바일 실시간 전략(RTS)게임 '택틱스크러시'가 'MWU Korea Awards 17, TOP 21'에 선정됐다. 'MWU Korea Awards 17'은 유니티 코리아에서 우수한 게임 콘텐츠를 선정·시상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한 시상식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당 작품의 홍보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주시 기업 편웨이브 제작 'MWU 코리아 어워드 17' 선정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전략게임



'베스트 인디' 부문에 선정된 (주)편웨이브의 '택틱스크러시'는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RTS방식의 모바일 게임으로 데스크톱으로만 즐기던 게임을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

'택틱스크러시'는 201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스마트콘텐츠 창업지원과제로 선정돼 2016년 7월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4월에는 북미,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 8개국에 해외버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디벨로버전 외 10개 채널에 방송되었으며, 게임 아이템 거래 포털인 아이템 매니아와 유통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주)편웨이브는 모바일 게임분



아뿐만 아니라 VR·AR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옥마을 AR게임인 '왕의 보물을 찾아서'를 올빼미하우스와 컨소시엄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올 연말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열악한 기업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점에 박수를 보낸다"며 "관련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편웨이브의 '택틱스크러시'는 오는 16일과 17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유니티 서울 2017'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6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RTS 게임 : 플레이어 자원을 통해 생산한 병력으로 다른 경쟁자를 섬멸시키는 게임으로 자신의 순서에만 움직이는 턴 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경쟁하는 방식. 예)스타크래프트